

“이지훈 갑질로 ‘스폰서’ 스태프 절반 교체”

초기대본 집필 박계형 작가
이지훈 출연분량 불만 폭로
제작진 “일방적 억측·오해”
“성폭행 협박” 누리꾼 주장
제이세라 “강제 추행 고소”



배우 이지훈, 김선호(가운데)가 얹은 논란으로 활동에 제약이 걸리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가수 제이세라(맨 오른쪽)는 “성폭력 피해자”임을 밝히며 한 누리꾼에 맞섰다.

스포츠동아DB·사진제공 | 솔트엔터테인먼트·사진출처 | 제이세라 SNS

4일 IHQ의 드라마 ‘스폰서’의 초기 대본을 집필한 작가가 주연 이지훈의 ‘갑질 행태’로 “스태프가 절반이나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지훈은 촬영 현장에서 지인과 함께 엿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제작진은 이를 부인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는다.

일부 연예인들을 둘러싼 갖은 ‘폭로성’ 주장이 이어지면서 방송가 안팎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연예인 당사자이거나 주변인들이 내놓은 주장에 갖은 의혹이 더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논란을 키운다.

●폭로… 폭로… 연예계 뒤숭숭

‘스폰서’의 초기 대본을 쓴 박계형 작가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이지훈이 출연 분량에 불만을 드러냈다”면서 이에 자신을 포함한 “연출자와 촬영·조명 등 절반의 스태프가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사실이 아니다. 연기자의 분량에 대한 이의 제기로 작가 등 스태프를 교체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작가의 “일방적 억측”이라고 부인했다. 작가가 바꾼 건 “수정 요청에 제대로 응하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은 촬영현장 “갑질” 의혹도 받았다. 한 스태프의 주장에 “이지훈이 현장에서 바지를 벗고 소동을 벌였다”는 등 또 다른 의혹이 더해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제작진은 “마찰로 인한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배우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가 “교제 중 아이를 가졌지만, 낙태를 종용받고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폭로성’ 주장을 내놔다. 이에 김선호가 사과했지만, 이들의 지인임을 주장하는 이

가 전 여자친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을 온라인 매체를 통해 내놓았다. 배우 노유정은 전 남편 이영범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해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자아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영범의 외도 상대가 “친분이 두터웠던 유병 배우였고, 그로 인해 큰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이 해당 배우의 신상을 찾아 특정인을 지목하며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가수 제이세라는 한 누리꾼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음악 관련 인물루언서

라는 누리꾼은 최근 “제이세라와 스킨십 이후 연인관계에 대한 응답 요구를 거절하자 ‘성폭행당했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이세라는 그를 “준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로 이르면 4일, 늦어도 이번 주 고소할 것”이라면서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밝혔다.

●SNS 등 다양한 플랫폼 대중화 따른 현상

이처럼 일부 연예인들을 겨냥한 잇단 ‘폭로성’ 주장이 잇따르면서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이 각 당사자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 제기와 주장이라는 점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제3자의 주관적 ‘복격담’이나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는 주장이 엮히지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기도 한다. 연예현장에서 확산하는 논란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부딪쳐 원인과 관련해 일방의 잡잘못을 가리기가 여의치 않다. 결국 ‘일방의 폭로와 주장→논란 비화→해명과 반박→또 다른 의혹 제기→논란 확산→반박 또는 법적 대응’의 패턴이 반복된다.

연예계 안팎에서는 유튜브를 비롯한 SNS 등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엿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4일 한 연예관계자는 “사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지만, 그러기 전에 갖은 설과 주장이 오가는 경우에는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2donga.com

연예뉴스 HOT 3

SM엔터, H.O.T. S.E.S 등 고화질 무비 공개



H.O.T. ‘전사의 후예’

H.O.T., S.E.S, 신화, 보아 등 1990~2000년대 초반 인기를 얻었던 뮤직비디오를 고화질로 다시 볼 수 있다. 소속사 SM엔터 테인먼트는 유튜브와 손잡고 ‘리마스터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SM은 50여 팀의 뮤직비디오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S.E.S.의 노래 ‘드림스 컴 트루’는 신인그룹 에스파가 재해석해 선보이는 과정을 담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성수 대표는 “음악 팬들에게 케이팝의 역사와 진화 과정을 소개하면서 저변을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수,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쳐



최민수

배우 최민수가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율은 4일 “최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엑스레이 등을 촬영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이날 오후 1시45분쯤 서울 이태원동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최민수는 최근 영화 ‘웅남이’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부상 정도에 따라 촬영 일정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tvN ‘코미디빅리그’ 1년8개월만에 관객 모집



코미디빅리그

tvN ‘코미디빅리그’가 관객 모집을 시작한다. 4일 ‘코미디빅리그’ 제작진은 “약 1년 8개월 만에 현장 방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월25일부터 관객을 받지 않았고, 그해 7월부터 온라인 방청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9일부터는 현장 방청이 가능하며, 동반인 포함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이날 KBS도 “‘열린음악회’ ‘유히열의 스케치북’ ‘불후의 명곡’ 등 음악 프로그램 공개 방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리얼 예능’, 더 sexy하고 과감하게

현장감 위해 제작진 개입 최소화
‘고디바 쇼’ 남녀들 24시 생존계
‘극한연애XL’ 아찔한 수위로 눈길



리얼리티 소재의 유튜브 예능 콘텐츠 ‘고디바 쇼’,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 ‘극한연애 XL’(위부터)이 제작진 개입을 최소화시켜 ‘날 것’의 매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사진제공 | SGC·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

‘무(無)편입, 무(無)대본, 무(無)연출.’ 출연자들의 모습을 관찰해 담는 리얼리티 예능 콘텐츠가 더 과감해진다. 남녀 출연자들이 주고받는 농밀한 시선이나 스킨십을 전혀 거르지 않거나, 촬영장 곳곳에 수십여대의 카메라를 빈틈없이 설치해 24시간 풍경을 담아내는 등 ‘날 것’의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 제작진의 개입과 편집도 최소화한다. 선정성 지적과 표현 수위가 비교적 자유로운 유튜브와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대이다.

1일부터 선보인 유튜브 콘텐츠 ‘고디바 쇼’는 남녀 각 6명씩 모두 12명의 출연자가 제주 애월읍의 한 숙소에서 라운드마다 인기 투표를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내용이다. 출연자 동의를 얻어 방과 거실 등 숙소 곳곳에 60여대가 넘는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담는다. 제작사인 SGC 김은수 대표는 4일 “리얼리티 소재와 생존계 시스템을 결합한 포맷은 처음”이라며 “탈락하지 않기 위해 출연자들이 화합하고 경쟁하는 과정이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와 유튜브 채널 ‘은하캠핑’이 공개한 ‘극한연애 XL’도 아찔한 참가자를 낚는다. 남성 6명, 여성 5명의 참가자가 무인도에서 펼쳐는 연애 예능 콘텐츠다. 남성 출연자들은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상의를 벗고 복근을 자랑

하는가 하면, 커플이 된 남녀 출연자가 좁은 텐트에서 함께 밤을 지새운다. 외부 접촉이 차단된 무인도를 배경으로 이들의 미묘한 분위기를 극대화해 독특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헤어진 커플이 함축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티빙 ‘환승연애’, 이별을 고민하는 커플이 각기 다른 상대와 데이트하는 카카오톡 ‘체인지 데이즈’ 등도 최근 시즌 2 제작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자극만 쫓는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지만, 각 제작진은 “젊은 세대의 자유분방함을 살릴 뿐 노골적 수위의 표현은 없다”고 밝혔다. 김은수 대표는 “연출이 가미된 예능 콘텐츠에 대한 흥미가 갈수록 떨어져 가는 흐름에 맞춰 현장성을 최대한 살리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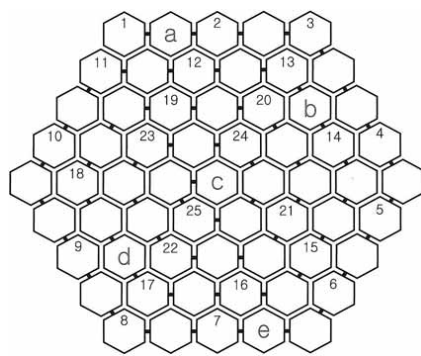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3	6			7	1	
1				9		3		6
			1		7			
	3		5		8		6	
8		6				2		5
	2		7		1		9	
			9		3			
2		5		7				9
	9	8			6	5		

■ 스도쿠정답

7	9	1	2	8	6	5	3	4
6	8	1	7	9	3	2	4	5
8	2	9	5	6	1	7	3	4
5	6	8	1	9	7	2	3	4
9	7	2	6	5	3	1	8	4
1	9	7	8	2	5	6	3	4
7	8	6	1	3	2	9	5	4
9	5	2	6	7	1	8	3	4
2	1	7	9	8	3	6	5	4
9	7	2	1	8	9	3	6	5
7	8	9	5	1	2	6	3	4
8	1	2	9	7	6	5	3	4
6	8	1	7	2	9	5	3	4
8	7	1	9	8	1	6	5	3
2	9	5	6	3	7	9	1	8
9	6	8	9	5	7	1	2	3
1	2	7	1	8	9	5	6	3
7	9	6	1	6	7	9	8	3

■ 낱말문제



01. 활짝 트이고 아주 넓음. 02. 여러 가지 쓰임새. 03. 바다를 건너가서 싸움을 벌이는 해군 작전. 04.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높이 만든 대. 05. 나라 안팎에 대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 06. 일륜차(바퀴가 하나 달린 수레). 07. 차를 탔을 때 어지러워

구역질이 나는 일. 08.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 09. 몸에 벌여지는 일을 모를 만큼 정신을 잃은 상태. 10. 물 위에 떠내려가는 얼음덩이. 11. 장작으로 피운 불. 12. 상서롭지 못한 일. 13. 졸업생들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베푸는 모임. 14. 마음이나 도량이 넓고 큼. 15. 한 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광역자치 단체장. 16. 사열하는 사람을 위해 높이 만든 단. 17. 외쳐 꾸짖는 한 마디의 소리. “ㅇ갈ㅇ성” 18. 목소리로 새, 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일. 19. 이성에 충정을 느낄 만한 나이. 20. 바둑에서 살 가망이 없는 돌은 버리고 선수를 잡으라는 말. 21. 한 나라가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 22. 따로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a~e칸을 이어놓으면 꽃 이름이 됩니다.

